

# 환경의 세기를 위한 시대적 소명 순환형 경제사회의 구현



신부식 박사 국화환경경제연구회  
상임정책연구위원

21세기의 화두는 단연 지속 가능성에 관한 문제다. 인류의 존속과 번영은 물론이고 생태계 전체가 더 이상 지속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산성비, 오존층 파괴, 그리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등은 이미 관념적 위협의 차원을 넘어 실생활에서 구체적인 형태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는 전문가들은 21세기는 환경의 세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생태계는 서로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균형과 순환적 체계를 유지하며 지속성을 간직해 왔다. 그러나 인간들의 지나친 간섭 속에 생태계의 순환적 체계가 무너지고 그 지속성은 심각하게 상실되고 말았다. 생태계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무분별한 개발과 성장이 초래한 결과다. 인간의 활동은 생산 활동과 소비 활동의 연속이다. 이러한 생산 활동과 소비 활동은 끊임없는 물질의 흐름을 바탕으로 영위된다. 자연환경은 물질흐름의 한 중간에 있다. 즉 인간이 소비하고 생산하는데 필요한 각종 자원을 공급해주는 막중한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버린 각종 폐기물들을 받아들이고 처리해 주는 필수불가결의 기능도 수행한다. 자연환경으로부터 인간사회에 투입된 자원의 총량은 질량보존의 법칙에 의해 궁극적으로 생산과 소비 후 자연환경에 다시 버려지는 폐기물의 총량과 일치한다.

따라서 지속 가능성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일방적이고 단선적인 자원의 소비 체계를 생태계 본연의 원리인 순환적인 체계로 복원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로 이어지는 단선적 경제 시스템을 벗어나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생활화하는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자연환경으로부터 경제시스템 속으로 유입되는 자연자원의 양을 대폭 줄여야 하며 발생된 폐기물도 최대한 다시 재활용해야 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무엇이든 절약하고 철저히 재활용하는 것이다. 이 길만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지속 가능성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환경의 세기에 대한 소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